

# 키이우 공포의 새벽...러 미사일 아파트·유치원 덮쳐

1명 숨지고 잔해 아래 주민 간헐...드니프로서는 4명 사망  
'대규모 공격' 경고 후 공습...폴란드 방공 강화·전투기 출격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러곳에서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며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속출하고 건물 일부가 무너지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키이우 곳곳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았으며 폭음이 속출했다.

이날 공격으로 2층짜리 아파트 한동이 미사일 공격으로 붕괴해 부상자가 보고됐으며 주민들이 건물 잔해 아래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키이우 당국은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도 발생했다.

아울러 키이우 포딜 지구 내 9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미사일 파편이 강타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상업용 건물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오블론 지구에는 미사일 잔해에 맞은 자동차 여러 대에 불이 붙었으며 유치원 인근을 포함한 공터 2곳에서도 불길 이 목격됐다.

키이우 당국은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공습 직전 대피 경보를 내렸으며 수천

명이 지하철역 내 등으로 피신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DPA 통신은 이날 드니프로,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도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올렉산드르 한자 드니프로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러시아 공격으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날 러시아 공습은 인접국 폴란드도 긴장시켰다.

폴란드 군 당국은 소셜미디어(SNS) 엑스를 통해 방공 시스템을 '경계 태세'에 돌입하고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은 지난달 25일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교 공관 인력 등 외국인들에게 키이우를 떠나라고 경고한 후 진행됐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입자, 키이우의 한 지하철역에서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REUTERS=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날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공습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민들에게 공습경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 내 자국 점령지인 루한스크의 대학 기숙사가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 연일 보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

의 기습 공격으로 16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 공격이 인근 군 사령부를 타격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먼로 코스프레' 1천37명 기네스 기록

흰색 드레스·금발 차림으로  
팜스프링스 먼로 동상 앞 집결



20세기를 대표하는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천명이 넘는 팬들이 '먼로 코스프레'를 하고 세계기록을 세웠다. <사진>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팜스프링스에 이날 먼로 차림을 한 1천37명의 팬이 모여 '먼로 복장을 한 최대 인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주최 측이 팬들에게 제공한 복장은 먼로가 1955년 "7년만의 외출"에서 선보인 흰색 드레스에 금발 가발이었다.

먼로의 흰색 드레스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장면은 할리우드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기네스북 세계기록 도전을 위해 팜스프링스에 모인 팬들은 팜스프링스 주민을 포함해 관광객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 노년층 등 배경이 다양했다.

본명이 노마 진 모텐슨인 먼로는 1926년6월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뜨거운 것이 좋아' 등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1950년대 중반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먼로는 36세 때인 1962년 악물 과다복용으로 숨졌지만,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남았다.

팜스프링스는 먼로가 생전에 즐겨 찾았던 휴양지로, 지역 미술관 앞에는 높이 8m짜리 먼로의 대형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이날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행사 참석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1주일내 '휴전연장·호르무즈 개방' 합의 예상"

"중전 합의가 군사적 승리보다 나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향후 1주일 내로 이란과의 중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 완성 및 합의 시점을 묻자 "향후 1주일 내로 당신이 그걸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나는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중전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중전 합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에 물린 고농축우라늄(HEU)의 미국 주도 발굴 및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도 당신이 아까 봤듯이 내가 아주 빠르게 반전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작은 문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란발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헤즈볼라와 통화해서

'쏘지 말라'고 했고, 비비(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사격을 중단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 상황(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자. 바라건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란과의 중전 합의가 "군사적 승리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당신은 정말 큰 국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 매우 큰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것이고, 정말 엄청난 적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NASA "블루오리진 발사대 복구 2년 걸려"

폭발 사고로 파손된 블루오리진의 로켓 발사대가 내후년은 돼야 복구될 것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내다봤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1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해도 발사대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상 복구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다.

인류 우주 비행의 역사 전반에 걸쳐 새로 건설하거나 재구축한 발사대의 일정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2026

#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